누가행전 강의안 7 대신대학교 신학과

고대의 식사와 누가복음

1. 오병이어 (눅 9:10-17)
	1. 복음서의 오병이어 기록의 공통 요소들

네 복음서의 각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 고 있으나 여전히 동일한 기적을 다룬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공관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 사이의 차이점이 더욱 현저하다는 것도 이 사실을 뒤엎지는 못한다. 네 복음서의 공통 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기적은 저녁 무렵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었다(마 14:13; 막 6:32; 요 6:2). 예수께서 는 이 기적 전에 무리들에게 치유의 사역(마 14:14)과 가르침의 사역(막 6:34)을 하셨다 (눅 9:11). 제자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기를 기대하거나 그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마 14:15, 17; 막 6:36-37; 눅 9:11-14; 요 6:6, 9).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주도적인 활동으로 일어났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는데 사용한 음식은 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이다. 요한복음 제외하고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배분하는 일을 했음을 밝힌다(마 14:19; 막 6:41; 눅 9:16).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는 공관복음의 말씀과 일치된다(마 14:16; 막 6:37; 눅 9:12). 무리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리에 앉는다. 예수께서는 빵과 생선을 받아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마 14:19; 막 6:41; 눅 9:16; 요 6:11). 무리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마 14:20; 막 6:42; 눅 9:17; 요 6:12,26). 음식을 배불리 먹은 남자들 은 모두 5천명 정도였다(마 14:21; 막 6:44; 눅 9:14; 요 6:10). 푸짐 하게 먹고 남아 거둔 음식은 열두 바구니를 가득 채웠다(마 14:20; 막 6:43; 눅 9:17; 요 6:13). 오병이어의 기적 후 제자들과 무리들 은 즉시 분리되고 해산된다(마 14:22; 막 6:45; 요 6:14-15). 이 사건과 바로 연결된 기사는 예수께서 물위를 걸으신 사건이다(마 14:22-33; 막 6:45-52; 요 6:16-21).15) 이러한 공통점들은 네 복음 서가 다루는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며 기본적인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고하게 해준다.

위에 사실을 종합할 때 오병이어의 네 기록에서 집약되는 공통분모는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5천명을 배부르게 먹였으며 남은 음식을 거둔 것이 열 두 바구니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드러진 숫자는 5와 5000과 12이다. 이와 비슷한 공통분모는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세 마리로 4천명을 먹이고 남은 음식이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기적에도 그대로 나온다 (마 15:32-39; 막 8:11). 여기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숫자는 7(빵의 수)과 4000과 7(남은 음식을 담은 광주리의 수)이다. 이러한 숫자 배열은 예수께서 친히 두 음식 기적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생선과 관련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심으로 가능해졌다(마 16:9-10; 막 8:19-20). 더욱이 오병이어는 바구니(‘코피노스’)를, 칠병삼어는 광주리(‘스퓨리스’)을 각각 구별되게 사용한다. 두 용기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은 둘의 크기가 다를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그릇을 서로 바꾸어서 음식을 담았다면 오병이어의 12란 숫자와 칠병이삼어의 7이란 숫자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오병이어의 경우 5, 5000, 12의 배열과 칠병삼어의 경우 7, 4000, 7의 배열이 미묘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 질 가능성을 더해준다. 이를 인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첫째, 학자들은 바구니가 유대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체적으로 지적한다. 반면 광주리는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 9:25). 둘째로, 오병이어의 기적 대상은 유대인이고 (마 14:13; 막 6:34; 눅 9:10; 요 6:23-26), 칠병이삼어의 기적 대상은 이방인들이다(마 15:31, 32; 막 7:31; 8:2). 셋째로, 첫 번째 음 식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유대인의 도시 벳새다에서 멀지 않은 곳이 나, 칠병이삼어가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이방인 들의 도시 데가볼리 지역이다(막 7:31). 넷째로, 두 음식기적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서로 약속한 것과 같이 오병이 어의 기적을 먼저 기록하고 칠병이삼어의 사건을 나중에 기록한다. 다섯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무리와 함께 한 당일에 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칠병이삼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무리들과 함께 한지 3일째 일어났다(마 15:32; 막 8:2). 복음서의 수난과 부활예언에서 제 삼일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사실 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마 16:21; 17:23; 20:19; 막 8:31; 9:31; 10:34; 눅 9:22; 24:7). 여섯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 의 대상이 유대인들이라 그들의 식사문제를 걱정했지만 칠병이삼어의 대상의 식사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과, 칠병이삼어의 기적이 이방인들과, 각각 관계있음을 강하 게 시사한다.

그러면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을 위해 베풀어진 오병이어 사건 에 등장하는 숫자 5, 5,000과 12와 칠병이삼어 사건에 등장하는 7, 4,000과 7은 각각 무엇을 암시하는가? 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숫자 5는 모세오경과 시편 5권의 숫자였다. 더욱이 유대교에서 빵이 율법의 영구적인 상징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빵 다섯 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모세 오경을 떠 올리게 했을 것이다. 숫자 5,000은 숫자 5에 숫자 10을 세 번 곱한 수(5×10×10×10)로 유대인들의 배수이다. 남은 빵의 숫자 12 바구니는 쉽게 구약 이스라엘백성의 12지파를 연상하게 한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첫 번째 구속자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구속자(메시아)도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의 백성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메시아 기대 사상이 어 느 정도 퍼져있었다 (2 Baruch 29:8; Ecclesiates Rabbah 1:9). 이러한 내용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백 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와 비슷하게 빵의 숫자 7과 광주리 숫자 7은 일반적으로 완전 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의 온 세계를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 구약에서 가나안 족속은 작게는 다섯 개(출 13:5) 많게는 10 (창 15:19-21)으로 계산되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나안 족속 은 7족속이다 (신 7:1; 수 3:10; 24:11).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온 땅에 퍼진 족속의 숫자는 숫자 7의 10배수인 70이다 (창 10장). 당시 온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 7년간의 기근이 있었다 (창 41:26). 모세 가 하나님의 온 백성의 대표자로 세운 숫자가 역시 70이다(민 11: 16,25,29). 예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까지 퍼질 것을 염두에 두 고 친히 제자 70(2)명을 세우셨다(눅 10:1).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의 첫 도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며 일곱 번 성을 일곱 번 돌았다 (수 6:4). 열방의 나라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긴 기간도 상징적으로 70년이다 (렘 25: 11).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이방인 신자들과 관련하여 숫자 7이 등장한다 (행 6:3; 20:4). 더욱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3:1), 일곱 별, 일곱 촛대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역시 이 숫자와 연관되어 있다(1:20; 2:1). 숫자 4,000은 숫자 4에 10을 3번 곱한 수이다. 숫자 4는 땅의 네 방향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수이다 (사 11:12; 렘 49:36; 단 7:2-3; 슥 1:8-11; 6:5; 계 7:1). 에덴동산의 중앙에는 온 땅의 네 방향으로 흐르는 네 강이 있었다 (창 2:10-14).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네 뿔은 유다 백성을 헤친 열국의 뿔로 간주된다 (슥 1:18-21). 계시록에서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통제하는 네 천사가 등장한다 (7:1). 이 렇게 숫자 7과 4,000은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온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칠병이삼어와 관련된 숫자들은 구원의 복음이 앞으로 온 세계에 선포될 것을 예고한 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통합적으로 드러내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고, 칠병이삼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 두 기적은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한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한 식탁교제를 통해 구원의 만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마 9:9-10; 11:19; 막 2:15; 눅 5:30; 7:34; 15:1-2) 예수님의 음식기적은 그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종말론적인 만찬을 제공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미묘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비적인 성만찬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핵심 적으로 요약하는 마지막 만찬과 이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자연스럽게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복음서의 오병이어 기사는 이 계시의 세부적인 내용을 각 복음서의 각도에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드러낸다. 이에 대하여는 곧이어 다루게 될 것이다.

* 1.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문맥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 기사의 배치는 마가복음에서의 그것과 대략적으로 유사하나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진다. 이 둘은 예수께서 누구인가에 대한 헤롯 안티바스의 고민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 기사를 대신한다는 것과 오병이어 기사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정체 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먼저, 누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같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 기사를 어디에서도 상술하지 않는다. 누가는 단순하게 9장 9절에서 “내가 목을 벤 요한”이란 언급을 통해 마태와 마가의 관련 기사를 전제할 뿐이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헤롯 안티바스의 고민기사를 중앙에 배치시키고 앞뒤의 내용은 각각 마가복음의 기사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열두 제자들의 사명과 현장 사역 (9:1-6)과 현장에서 돌아온 사도들의 사역 보고와 예수님의 반응이다 (9:10). 마태와 마가에 기록된 세례자 요한의 죽음 기사의 초점이 선지자 예수님의 죽음(마태복음)과 복음의 증인(제자) 들의 고난에 있다면, 이 기사를 대신한 누가의 헤롯의 고민 기사는 예수께서 누구인가에 그 초점을 둔다. 제자들의 핵심사명은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고 (각 치유와 기적) 들려주었던 것 (하나님나라 복음의 선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 주는 것이다(9:1-2). 이러한 사명 완수를 위해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이다. 이 점 에서 오병이어의 기사는 헤롯이 고민스럽게 던진 예수님은 누구인 가”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하는 제자들은 헤롯 안티바스 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던진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예수님의 신분을 바르게 이해해야 했다.

위의 지적과 관련하여 여전히 주목할 점은 누가복음에서는 오병 이어 기사 직후에 세 복음서(마태, 마가, 요한)에 등장하는 예수께서 물위를 걸으신 기사 대신에 바로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기사를 배치 한다는 것이다(9:18-21). 이러한 배열은 마가복음 6:15-8:26의 생략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소위 “대 생략”(Great Omission)으로 일컬어지는 대폭적인 생략의 결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문답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배열은 저자의 독특한 기여의 결과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9:10-17)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9:18b-20) 을 연결하는 고리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고독한 기도이다(9:18a). 이러한 혁신적인 배치로 인하여 오병이어의 기 적은 예수님의 기도와 이어지고 그의 기도는 곧 바로 그의 메시아 신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으로 나아간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 들이 시각적으로 체험한 진리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 청각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시각적으로 계시된 예수님의 정체는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 청각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힘입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로 깨닫게 된 제자들 중 세 제자(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변형의 사건(9:28-36)을 통해 예수님을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입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도록 천상의 도전을 받았다. 예수께서 하산한 후에 더러운 영에게 사로 잡혀 간질병으로 고생하던 아이에게 행한 놀라운 귀신축출과 치유 (9:37-43)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할 제자 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에 대한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기 위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 1. 누가복음 오병이어 기록의 독특성

누가의 오병이어 기사에 등장하는 독특한 요소를 생략과 변경 추가의 각도에서 생각해보자. 우선 누가의 기사에서 생략된 항목에 대하여 보자. 첫째, 누가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신 계기나 목적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누가는 다만 사역의 현장에서 돌아온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 신 것만 밝힌다. 둘째, 누가는 마태와 마가의 기록과는 달리 무리들 이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에게로 따라 왔는지 밝히지 않는다. 셋째, 누가는 병행기록 중 유일하게 잔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넷째, 누가는 무리에 대하여 예수께서 보인 동정심을 언급하지 않는다. 다섯째, 누가는 세 복음서의 병행기록과는 달리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갔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략들은 누가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체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아니 했음을 알려준다.

누가의 기록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요소가 적지 않다. 첫째, 누가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간 지명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물론 누가는 이 지역이 빈 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9:12). 그가 밝히는 지명은 “벳새다라 불리는 도시”이다 (9:10). 이것은 예수께서 그 의 제자들과 함께 “벳새다”란 도시(혹은 마을)로 들어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의 방향 또는 지역으로 가신 것을 시사한다. 이곳이 마을들과 고을들에서 떨어진 빈들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이해를 지지한다. 이 마을의 언급은 10장에서 회개하지 않은 벳새다에 대한 예수님의 진노 선언의 배경이 된다(10:13). 둘째, 누가는 예수님의 동정심을 언급하는 대신에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신 사실을 기록한다(9:11). 이 언급을 통해 누가는 기다리던 무리들에게 앞서 영접을 받은 예수(8:40)께서 이제는 무리들을 영접하심을 보여 준다. 셋째, 누가는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모두 언급한다(9:11). 누가의 기록에만 “하나님 나라”란 문구는 9장에서만 무려 5번 등장한다 (9:2, 11, 27, 60, 62).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는 것이고, 그의 치유는 자신이 친히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무리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중 사역은 그가 제자들에게 위임한 사역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9:2, 60, 62),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현장에서 몸소 행한 사역이었다(9:6). 더욱이 이러한 사역은 예수께서 지금까지 백성에게 행해 오신 사역의 핵심이었다 (4:43; 5:16-17; 6:17-19; 7:21-22; 8:1,10). 동일한 저자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사역을 지속한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넷째, 무리를 인근 주변 마을들로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마태와 마가가 제자들을 막연하게 “그 제자들”(‘호이 마쎄타 이’)이라고 밝히는 것과 구별되게 “그 열둘”(‘호이 도데 카’)로 밝힌다(9:12). 여기서 “열둘”로 지칭된 제자들은 앞서 10절에 서 사도들 (‘호이 아포스톨로이’)로 불렸고, 그들의 사 명과 관련하여 1절에서는 “열 둘”로 일컬어졌다. 같은 장에서 “열둘” 과 “사도들”이란 두 표현의 연결은 일전에 산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들이라고도 불린 열둘”(‘도데카 후스 카이 아포스톨루스 오노마센’)의 사명을 상기시킨다(6:13). 이 표현은 저자가 열두 제자들의 사명을 의식하고 본 기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제자들을 “열둘”로 명백 하게 표기함으로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담은 바구니 “열 둘”과 “열 두”제자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이러한 연결로 열두 바구니는 12사도로 대표된 신약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지시할 가능성을 한층 더 해준다. 유독 누가의 병행 기록만 남은 음식을 담은 바구니 “열 둘”의 언급으로 종결된다는 사실은 열두 제자와 열두 바구니의 연결을 더욱 친밀하게 한다. 이 점에도 제자들이 거둔 음식은 상징적으로 신약의 영적인 12지파를 먹일 구원의 음식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누어 줄 준비가 되지 아니했지만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것과 같이 나중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다. 다섯째, 누가는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보인 관심을 마태와 마가의 경우보다 더 세심하게 표현한다. 두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단 지 무리들을 보내어 필요한 음식을 사먹게 하는 것이었으나, 누가복음에 제자들의 관심은 무리들의 식사만 아니라, 숙박의 문제도 해결 하는 데 있었다 (9:12). 12절에 숙박이 식사보다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제자들의 관심은 그들의 숙박에 더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누가는 제자들이 돈의 액수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가서 이 모 든 백성(‘판타 톤 라온 투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는다면”하고 예수께 대답한 것을 기록한다 (9:13). 여기에 주목할 내용은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과 여기에 표출된 제자들의 태도이다. “모든 백성”이란 표현은 제자들이 무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는 긍정적인 시각을 잘 보여준다. 사실상 모든 백성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2:10, 31; 7:29; 8:47; 18:43; 20:45; 21:38; 24:19). 13절 중간에 나오는 문구“(아마도)...하지 않는다면” (‘에이 메티’)는 본문을 포함하여 신약 에 단지 3번 나온다 (고전 7:5; 고후 13:5). 이 문구와 연결된 항목은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이 아니다 (고전 7:5; 고후 13:5). 본문에서도 이러한 함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를 살려 제자들이 한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는 가서 이 모는 백성을 위해서 음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빵 다섯과 생선 두 마리 밖에 없습니다”가 된다.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들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음을 실토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 확실하게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마가복음 의 경우보다 긍정적이다. 제자들의 긍정적인 모습은 앞서 본 무리들 에 대한 태도에 반영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에 대한 정확한 순종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50명씩 앉히라고 제자들 에게 지시했고, 그들은 그대로 행하였다(15절, ‘카이 에포이산 후토스’). 더욱이 예수님의 지시와 그 실행을 연결하는 같은 동사 “앉다”(‘카타크리노’)의 사용은 제자들의 순종을 재차 역설한다.

위에 언급된 내용들에 근거하여 오병이어 기사에 대한 누가의 독특한 관점을 정리해보자. 일부 내용들은 누가의 독특한 관점을 형성 하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누가의 기록에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은 누가의 독특한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헤롯 안티바스의 고민스런 질문은 저자가 오병이어의 기사로 들어가는 창문과 같다. 환언하면 오병이어의 기사는 헤롯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제기한 질문에 대한 시각적인 대답이라는 것이다. 열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어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계시는 누구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 열두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한 예수의 자기 계시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지는 않다. 예수님의 기도 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과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이 계시를 비로소 귀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오병이어의 기사와 베드로의 고백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서 누가가 마가의 큰 단락 (6:45-8:26)을 생략할 때 저자의 의도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를 이해하기 바랐을 것이다.

사도들은 나중에 저자가 기록한 오병이어 기적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제자들이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의 이상을 역사 속에 어떻게 실현했는지 잘 보여준다. 누가의 오병이어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들(사도들, 모든 백 성, 열둘, 오천)과 내용들(가르침과 치유)이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하 여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행 2:42-43; 3:9,11; 4:4, 10, 33, 35, 37).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가 있었던 것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였고(행 3:6-8), 이 기적의 결과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수많은 백성을 가르쳤다 (3:11-26).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백성에게 가르친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약의 구원약속이 성취되었으며(3:13-18), 이제 모든 백성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모세가 예언하였고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그 선지자로 믿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다(3:19-26). 그 결과 복음의 양식을 먹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오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4:4). 남자 오천 명의 숫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남자의 숫자와 동일하다(9:14). 오병이어의 기사에서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께로부터 친히 받아 주시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 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천상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었다 (3:6, 16, 26). 이와 같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친히 행하셨듯이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의 예수 이름 선포와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께서 구원의 양식을 제공하신 것이다. 이것은 마침내 사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상을 제자들이 실현하게 되었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강조점이 누가의 오병이어 기사의 독특한 기여이다.

1. 큰 잔치 비유: 누가복음 14:15-24
	1. 배경

이사야 25:6-9에서 이사야는 역사의 끝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꿈을 꾼다.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풀고 왕들이 먹을 음식을 제공하는 꿈이었다. 이 잔치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서 열리며 손님 중에는 모든 이방 민족이 포함될 것이다. 죽음이 끝나고 눈물이 씻음 받을 그날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기원전 2세기에 쓰여진 제1에녹서 62:1-11는 메시야와 함께 할 큰 잔치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이방인도 여기에 참여하리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죽음의 천사가 와서 칼로 그 이방인들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는 피가 흐를 것이며, 신자들은 메시아와 함께 앉을 잔치의 장소에 이르려면 흐르는 피를 건너가야 할 것이다. 제 1에녹서 62:1-11의 저자는 이사야의 환상과 개념상 반대인 견해를 제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주제와 관련된 또 다른 목소리는 쿰란 공동체의 문헌 1Qsa 2:11-22에서 발견된다. 이 문헌은 “메시아의 통치”라고 불리운다. 쿰란 공동체는 어떤 이방인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확신했다.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본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이 그 앞에 앉되, 각자 그 위엄의 순서대로, 그들의 진영과 대오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앉으리라.” 바로 그 두루마리 앞부분을 보면 “그 살을 두들겨 맞은 자나, 그 발이나 손이 마비된 자나, 절름발이나, 장님이나, 귀가 먼 자나 벙어리나 사람 눈에 보이는 흠이 그 살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메시아 잔치를 해석한 유대문헌들은 이사야가 보았던 아름다운 환상과 상당히 다른 그림언어를 제공한다.

* 1. 비유의 해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는 도입부는 이야기의 청자를 이 큰 잔치의 주제로 인도한다. 중동의 전통 촌락에서는 잔치 주최자가 그의 친구 무리를 초대한다. 잔치 주최자는 초대를 수락한 사람들 숫자를 토대로 어떤 종류의 고기를 얼마나 대접할지 결정한다. 잔칫날은 가축이나 가금을 잡고 잔치를 준비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주인은 종을 동네 곳곳에 보내 예부터 내려온 대로 “오시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라는 말을 전하게 한다.

 본문에서 손님들은 참석을 약속했다. 하지만 음식 준비를 마쳤는데 손님들이 핑계를 대며 못 오겠다고 한다. 첫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밭을 보러 가야 한다. 하지만 그의 말의 진실성은 의심스럽다. 중동에는 사막이 많고 농지가 적다. 대다수 전통 촌락에서는 경작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조각들은 다 지명을 갖고 있다. 경작지를 사거나 파는 것은 꼼꼼한 과정으로서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 수 있다. 그러므로 밭을 샀다면 그 날 당장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기 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밭의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밭을 보러 가야 한다는 사람의 변명은 핑계에 불과할 것이다.

 중동에서는 지체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초대를 수락하고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손님이 마지막 순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려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말이 안되는 핑계거리는 초청한 사람을 일부러 욕보이는 것이다. 진실된 사과는 주인의 체면을 세워준다. 하지만 첫 번째 손님이 말한 핑계는 공개적으로 주인을 욕보이는 것이었다.

 두 번째 손님은 더욱 진실성이 떨어지는 변명을 한다. 소를 다섯 겨리 (10마리)를 샀는데 시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는 한 겨리 (2마리)씩 짝을 맞추어서 밭을 갈았기 때문에, 소를 사기 전에 먼저 소를 시험한 후에 사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중동에서는 누군가의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품위있고 예의 바르게 한다. 세번째 사람은 심지어 양해해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마도 초청을 거절하는 발언으로는 무례하게 들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받은 손님들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주인의 분노는 이해할 만한다. 당시의 사회는 다시 말하지만 명예와 수치의 사회였다.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대야했고 그렇지 않다면 잔치에 와야한다. 합당한 변명과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인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동이었다.

 종은 손님들의 의도가 주인을 욕보이고 그 잔치가 열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며 주인도 그런 손님들의 의도를 재빨리 간파한다. 그렇다면 주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

 눅 14:5을 보자 “그러자 그 종이 가서 주인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말하되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인 자들과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앞에서 말한 쿰란 문헌 “메시아의 통치”와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다른 그림을 누가복음이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초청한 손님들에게 모욕당한 주인은 초청을 거절한 손님들에게 보복하는 대신에 그 분노를 재가공하여 은혜로 바꾼다. 주인은 가난한 자들과 불구와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쿰란 공동체가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바로 그 자들이었다. 예수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소외당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지체 높은 주인과 함께 앉을 자격도 없고, 그들이 초대받은 잔치와 똑같은 잔치를 열어 주인에게 보답할 수 없는데도, 이제 기꺼이 잔치에 초대 받았다. 그럼에도 잔치에는 남은 자리가 있었다. 그러자 주인은 동네 밖의 큰길과 산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오게 하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약속에 대하여 외인들이었던 이방인들을 잔치로 초청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1에녹서와 상당히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유의 끝은 이렇게 끝난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제 화자는 주인에서 예수로 바뀌었다. 예수는 이미 메시아의 잔치는 시작되었으며, 이 큰 잔치는 예수 당신의 잔치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비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언급된 비유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다가가실 때 사 56:6-8을 염두에 두셨다. 실제로 예수는 성전을 깨끗케 하실 때 이 본문의 첫부분을 인용하신다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만 첫번째 부분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들도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길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다른 이들을 그에 모으리라” (사 56:7-8). 이사야의 구원 비전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스라엘에서 소외당한 자들이었다 (고자들, 3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는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다른 이들을 그에게 모으실 것이다 (사 56:8).

 이것은 큰 잔치 비유의 패턴과 같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소외당한 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의 잔치는 이방인들에게 확장된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곧 하나님의 통치는 쿰란 문헌 혹은 에녹 문헌과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곧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결격 사유가 있다고 여기는 자, 소외된 자, 쫓겨난 자,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 잔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다른 모든 이들을 이 잔치로 초청하고 있다.